



월  
간

# 두 임 누리 회 보

www.duem.or.kr

제10호 2004년3월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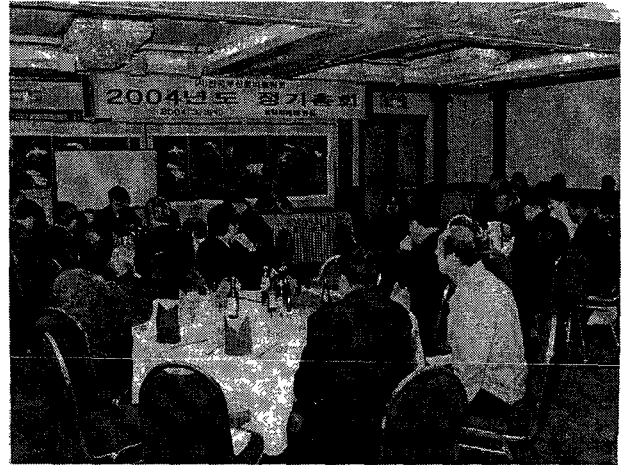
발행인 김 상 원  
편집인 손 이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국제B/D301호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전화:02/522-4260~1 FAX:02/522-4383

## 2004년도 정기총회 개최

지난 3월3일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오전부터 눈이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회 정족수인 파반수가 넘는 회원사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정기 총회의 안건으로는 ①2003년도 사업 실적보고 및 회계감사 ②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승인③정관변경의 건 ④감사선임의 건 ⑤단체표준 제정의 건 ⑥기타 안건등으로 진행되었다. 2003년도로 임기가 만료된 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각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지회장의 추천으로 선임되었다. 선임 감사는 전남 낙안유기질비료 김 선일 대표, 경북 홍주농업의 이 규대 대표, 경기 향림바이오택 한 영수 대표 이상 3인이 선임되었다. 단체표준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단체표준 규정에 관해서는 작년 초안을 마련한 것을 바탕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 위원회를 결성하여 세부적인 규격 설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98년도부터 우리 협회에서 주장해오던 생산능력검증은 우리 협회가 먼저 이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고 현재 추천 업무 중 추천기관이 생산능력 확인을 하게끔 되어있는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보조비료 참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2004년 정기총회 광경)

## 출하전 성분검사 1/4분기 점검

중앙정부 보조사업 참여업체는 1년에 4번 매 분기마다 출하 전 성분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중 상, 하반기 2번은 추천기관인 협회를 통하여 농협중앙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4분기가 마감되는 3월 이전에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1부를 협회 사무실로 보내주기 바란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 비료단속 업무가 3~4월중 이루어짐으로 미리 단속업무에 대비하는 의미로도 빠짐없이 검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협회로 성분분석을 의뢰한 업체는 검사대행업체에서 성분검사서가 통지되므로 따로 보낼 필요 없음)

## 단체표준인증단체 제도

산업자원부의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영

리법인 단체가 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제도의 목적 등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단체 표준화의 정의

단체 표준화란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단체를 구성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익 또는 편의가 공정히 얻어지도록 물체, 성능, 구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화되고 단순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단체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 2. 목적

- 동일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 구매 등에 의한 공동이익을 추구 하는 한편

-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 하는데 있다.

### 3. 필요성

- 한국 산업규격(ks)이 없는 경우

- 한국산업규격(ks)이 있는 경우에도 단체표준이 한국 산업규격(ks)을 상당수준 상회하는 경우. 이상과 같이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농림부에서 이 제도를 권유하는 이유는 비료관리법이 있으나 비료관리법 만으로는 이상과 같은 목적 및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특히 비료업무를 주된 업무로 시작된 농협중앙회 마저도 이 제도의 도입(유기비료공업 협동조합은 2004년 까지, 부산물비료협회는 2005년까지)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수 십 년간 비료관리법 만으로 관리해오던 것을 과연 무엇이 부족하여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일까?

규모면에서도 화학비료보다 훨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부산물비료 업계가 화학비료에도 없는 이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현재 비료관리법으로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보완 시

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현대 업계일부에서는 기존에 비료관리법 중 공정규격만 강화시켜 차별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염려스러운 실정이다. 물론 그간 수 십 년간 해오던 방법으로 제일 간편한 방법인줄은 모두가 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할 수 없어서 갖은 어려움을 안고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이 제도가 내용적으로 다시 몇 십 년을 후퇴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정규격만으로 품질관리가 어렵다면 그것은 공정규격에 문제가 아니므로 공정규격에서 규격설정을 하지 못했던 원, 부자재의 관리와 시설 및 공정, 즉 전체 시스템 관리에 더 주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예로 농산물 인증이 그러하다고 본다. 생산된 농산물을 인증하기 위해 규격설정을 하여 품질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퇴비 또한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 이유는 생명체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퇴비에 수분규제가 강화되면 소비자가 이득이다?

수분 규제 및 그 규격의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언 듯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이다. 소비자를 위해서 제품에 수분을 줄이면 그만큼 농축(?)된 물질이 되니까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화학비료가 제일이고 액비는 당연히 사라져져야 할 것이다. 퇴비제조에 있어 제일 중요한 공정이 발효공정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 때 발효의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물을 첨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퇴비는 원자재가 수분이 80%이상 되는 물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수분은 발효의 기본 요건이고 반드시 일정량이 남아 있게 마련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분이 없으면 없을수록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는 이야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듯 하다. 통상적으로 80%전후의 자재가 발효공정

을 거치면 (자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퇴비로서 사용 가능해질 쯤 되면 수분이 약 55%전후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10% 정도의 수분을 없애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대략 돈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20kg짜리 비료한포를 계산하면 2kg의 수분을 증발시켜야 한다. 물 1kg을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 539kcal이므로 1,078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 열량대비 에너지 원으로 대비해보면 등유로는 약70원, 전기로는 약100원정도가 순수 에너지 비용으로 들어가며 (등유의 발열량 10,000kcal/kg, 전기의 발열량 860kcal/kW) 기계설치등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약 200원 가량의 생산원가 상승요인이 생기게 된다. 이 비용은 엄격하게 따지면 발효와는 무관한 비용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용의 부담은 누가 지는 것일까? 거의 제품 값에 육박하는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생산자에게 부담시켜 소비자들에게 주겠다는 생각이라면 애 진작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진정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면 소비자의 선택에 기회를 넓혀 자기 실정에 맞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를 위하는 길일 것이다.

### 신입 회원사 안내

협성비료/ 대표 류 장열/ 경기이천  
 (주)삼우바이오/ 대표 권 문석 경기 안성  
 (유)향림바이오텍/ 대표 한 영수/ 이천  
 (주)신기농장/ 대표 이 원형/ 경기 안성  
 원삼축분/ 대표 최 윤수/ 경기 용인  
 유기자원(주)/ 대표 윤 주석/ 전남 나주  
 풍원비료/ 대표 조 정례/ 전남 벌교  
 대한유비산업(주)/ 편 인철/ 전남 영암  
 즐거운퇴비/ 대표 김 성기/ 경북 경주

### 2004년도 상반기 농협납품 지정업체 추천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중앙정부 보조사업은 지정생산업체 운용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신규 지정에 관해서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 농협중앙회에 추천하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 신규지정 업체 추천업무를 3월 말까지 서류 마감하여 4월 초에 끝낼 예정이다. 주위에 신규 등록을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적극 홍보하여 동참을 권해주기 바라며 대상 업체는 별도 양식을 발송하였으니 기일 엄수하여 신청하여주기 바란다.

###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증권 및 인증서 발송

농협계약 시 필요한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증권은 단체 계약하여 명단 작성 후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고 각 가입회원사에는 증권사본과 가입 인증서를 개별 발송하였다. 보험 가입은 하였는데 증권 및 인증서를 받지 못한 회원사가 있으면 협회사무실로 연락주기 바란다.

### 비료 품질검사 결과 조치내역

비종	업체명	소재지	제조일자	기준미달내역	제재기준																
퇴비	태성유기산업사	경남김해	2003.10.15	- 중량미달 : 7.5%	감가처리																
퇴비	도영유기사	경남통영	2003.10.30	유해성분(mg/kg, %)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left;"> <thead> <tr> <th>성분명</th> <th>유기물</th> <th>염분</th> <th>수분</th> </tr> </thead> <tbody> <tr> <td>보증</td> <td>25</td> <td>1이하</td> <td>50이하</td> </tr> <tr> <td>분석</td> <td>60.60</td> <td>1.19</td> <td>28.51</td> </tr> <tr> <td>미달</td> <td>-</td> <td>19.0</td> <td>-</td> </tr> </tbody> </table>	성분명	유기물	염분	수분	보증	25	1이하	50이하	분석	60.60	1.19	28.51	미달	-	19.0	-	영업정지 1월
성분명	유기물	염분	수분																		
보증	25	1이하	50이하																		
분석	60.60	1.19	28.51																		
미달	-	19.0	-																		
퇴비	대한유비	전남영암	2003.11.12	- 중량미달 2.5%	감가처리																

퇴비	대성영농	전남	2003.10.30	유해성분(mg/kg, %)				영업정지 3월
				성분명	구리	아연	니켈	
				보증	300	900	50	
				분석	107.60	287.54	66.08	
				미달	-	-	23.06	

## 제2회 농산업 포럼 개최

농어민 신문사가 주관하는 농산업 포럼이 지난 2월 17일 서울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각 산업 부분별 현황이 발표 되었고 비료산업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화학비료 매출액은 IMF이후 일시 감소(99)하였으나, 최근 대북지원, 친환경. 원예용비료 소비 확대 등으로 다소 증가.

○ 매출액:('99)8,262억원 → ('00)8,592 → ('01)8,317 → ('02)7,969 → ('03)8,317

○ 화학비료 생산은 70년대에 이미 자급 달성. 현재 생산량이 소비량 상회(2배)

- 생산: 8개 제조업체가 연간 330 ~ 370만톤 생산(생산능력: 450만톤)

- 소비: '90년(237만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176만톤 수준

\* 비료소비량(ha당): ('90)489kg → ('00)390 → ('01)343 → ('02)341

### <화학비료 수급현황>

(단위: 천톤.%)

	생산능력(A)	생산량(B)	농업용 소비량(C)	가동율(B/A)	자급율(B/C)
'90	4,032	3,752	2,365	93	159
'00	4,588	3,730	1,842	81	202
'01	4,512	3,500	1,716	76	204
'02	4,512	3,301	1,647	73	200

◇ 유기질. 부산물비료에 대한 정부. 농협의 보조지원사업으로 생산업체 및 생산량이 크게 증가('93~'95년 공동퇴비장 200개소 지원)

○ 생산업체수('02말 현재): 1,080(유기질비료 183, 퇴비 등 부산물비료 923)

○ 생산량: ('90)222천톤 → 901)2,135 → (02)2,501('90년대비 11배 증가)

◇ 화학비료 소비는 환경친화형 비료 소비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축산분뇨 퇴비화. 액비화의 확대에 따라 유기질 비료 소비가 크게 증가

○ 요소 소비량 : ('00)39만톤 → ('01)32만톤 → (02)31만톤 → (03)30만톤

\* 환경친화형비료 사용추세: ('98)3.2% → ('99)26.1% → ('00)47.8% → ('02)52.0%

○ 유기질비료 소비: 고소득 원예작물 재배 증가 등으로 소비량 급증

\* 소비량(kg/ha): ('90)100 → ('99)631 → ('00)764 → ('01)815 → ('02)823

### <유기질비료 생산. 소비동향>

(단위: 천톤.%)

구분	'90	'97	'99
생산(A)	222	1,543	1,687
소비(B)	221	997	1,334
대비(B/A)	95.4	64.6	79.1

구분	'00	'01	'02	('01/'90)
생산(A)	1,917	2,135	2,501	11.2
소비(B)	1,602	1,702	2,080	9.4
대비(B/A)	83.5	79.7	83.1	

◇ 화학비료는 176만톤중 159만톤(90%)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계통공급하고 나머지 17만톤은 원예용 비료로 주로 지역농협이나 비료업체 대리점(7010여개)을 통해 공급

◇ 유기질, 부산물 비료는 전체 판매량의 70%는 농협, 30%는 민간대리점 또는 생산업체를 통해 유통.